

issue - 길 떠난 수경 스님

흐르다가 돌아오소서

수경 스님! 오늘도 강은 제 소리조차 삼킨 채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졸지에 어미 잃은 충격에 어쩔 줄 몰라 하염없이 맴돌다가 안으로 아픔 삭인 채 그리 흐르고 있습니다. 스님이 계시 때처럼, 서울선원에는 지관 스님과 현국장과 명국장과 유림장이 자리하고, 사부대중은 생명평화대화마당에서 지혜의 말씀 들으며 생명의 등불을 가슴 가득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종단에 대해서는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맞서던 사천왕이 미물인 버들치와 죽부쟁이의 아픔에는 매일 아침 강가에 나와 그지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머가사셨습니다. 초인적인 의지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를 하고, “중이 될 때 부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셨던 아픈 스님을 이끄는 여강선원으로 떠나실 때는 위법망구(爲法忘身)의 보살이셨습니다. 이원규 시인은 “삼보일배로/이미 다 닳은 무릎 연골은 /절룩절룩 온몸 땀겨리면서 빛나는 사리요/오체투지로 더욱 침침해진 두 눈이아팔로/마침내 살아 청청진진사리”라고 노래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흘리시던 스님의 눈물이아팔로 진신사리 중의 진신사리였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강과 역사의 물길을 제 자리로 돌리고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힌 지극히 숭고한 죽을 앞에

그 누가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그 누가 스님의 고독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추모제 때 고독과 절망의 극단에 이른 자만이 낼 수 있는 사자후를 토하시더니, 그에도 변함이 없는 세상을 보며 더 깊은 고독과 절망에 잠기셨습니다.

환계(還戒)! 출세를 또 떠나셨으니 보살이 되는 계고, 허명과 과분한 대접이 싫어 촌로로 돌아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다 어느 따뜻한 겨울날에 바위 옆에서 즐다 죽으면 그 삶이 바로 부처지죠. 허나, 저 아름다운 연꽃이 향기 육연한 언덕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는 이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설사 내가 지금 퍼뜩 깨달아 부처가 되었더라도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있다면, 그를 구제하지 않는 한 나는 부처가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스님! 스님의 떠남에 시퍼런 달빛 안고 비수처럼 수직으로 내리꽂는 폭포가 연상되어, 이제 그만 홀로 여여한 스님으로 남겨두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중생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님의 눈물에 살 자리를 찾은 생명이, 스님의 사자후에 두려움에 떨 무리들이, 스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중생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하여, 선정에 든 스님 대신 미물들과 불쌍한 것과 못생긴 것들과 더불어 환하게 웃는 스님을 떠올립니다. 생사일반이 다 한 생각에 있으니, 발길 닿는 대로 돌고 돌아, 절로 절로 흐르다가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도훈 교수 (한양대)



생명평화로 소통하다 문수 스님 추모기간 첫 날인 6월 8일 생명평화 대화마당에 참가한 수경 스님은 대화마당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를 감싸고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 대화마당에 앞서 열린 108배 기도도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오체투지로 진행했던 스님은 많이 지쳐보였다. 오른쪽부터 수경 스님, 도법 스님, 법륜 스님, 이도훈 교수. 사진=박재환 기자

모두 내려놓고 초심으로 떠나

수경 스님 승적반납... 교계 당혹감에 휩싸여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승적반납과 함께 회계사 주지 등 모든 소임에서 물러났다. 스님의 급작스런 사퇴에 불교환경연대, 회계사 등 불교계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수경 스님의 사퇴는 6월 13일 밤 ‘다시 길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스님은 글에서 “남은 인생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며 “환경운동이나 NGO단체에 관여하면서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시절을 보내며 정치권력과 대척점에 섰던 것도 하나의 권력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수경 스님은 글에서 “생사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다. 대접 받는 중노릇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이어가는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지난 과거가 번다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난다”고 밝혔다.

스님은 5월 말 서울 한강선원 개원 이후부터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한강선원에서 노숙을 하며 강변범어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006년 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이상언 기자

이 소진돼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문수 스님 소신공양 이후 분심을 내고 전력을 다해 활동을 펼쳐왔다.

수경 스님의 사퇴 소식에 가장 당황한 것은 스님이 직접 챙기며 활동했던 불교환경연대, 회계사, 여강선원, 서울 한강선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님의 뜻을 이어가겠다. 수경 스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수경스님의 결정은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입적 이후 많은 시간을 갖고 고심한 결과”라며 스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불교환경연대는 “문수 스님 추모기간을 맞아 수행 정진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맞설 것”이라며 “중단의 풍토를 쇄신, 중단 혁신에도 힘을 쏟을 것”을 선언했다.

또 스님의 사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일각에 “모든 권위와 소임을 벗어던지고 초심으로 가겠다. 일체의 직을 사임한 것이니 일체의 억측이나 왜곡은 삼가달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 한강선원장 지관 스님은 “4대강 생명살림 운동 지장 없이 하겠다”며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의지

를 밝혔다.

회계사 신도회(회장 차호범)는 6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황망하고 당황스러워 순간 먹먹했다”며 심정을 밝혔다. ‘주지 스님께 올리는 글’에는 “회계사 신도들은 결코 스님을 보내지 않겠다. 회계사 주지 스님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곡한 요청도 덧붙였다.

회계사 신도회는 “40년 수행자로 살아온 수경 스님에게 회계사가 특별한 만큼 회계사 신도들에게도 수경 스님은 특별한 분”이라며 “환경운동가로서 온 몸을 사르며 수행의 길에 들었던 스님을 존경한다. 가슴이 아프다.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도회장 차호범행 보살은 “몸도 마음도 지친 스님이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신도들은 흔들림없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 신도회 등은 16일 매일 사시예불 후 수경 스님을 위한 3·7일 기도에도 들어갔다.

수경 스님의 오랜 동반인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조계종 화쟁위원회)은 “수경 스님은 떠남 조건이 때 때났으니(돌아올) 조건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이상언 기자

issue - 북한

북한 식량 패닉... 정부 지원 절실

좋은벗들 北에 인도적 식량 지원 촉구

최근 북한 중앙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식량을 못 준다”며 자력갱생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측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대북지원단체들은 인도적 지원 촉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5월 26일 각 단위, 각 개인이 식량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량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포기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남북간장 국면이라 하더라도 2000만 주민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의 시비를 논하고,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속, 대량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 중앙당은 5월 26일 ‘현재 조선의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문에서 “어려워진 식량 사정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다”며 내각 산하 무역성 등에 식량 배급 및 물자공급 중단, 시장 전면 폐쇄를 지시했다.

면 허용, 각종 무역 통제와 국제 첩보 등의 세부 사업내용을 전달했다. 법륜 스님은 “지시문을 전달 받은 당중앙 간부들과 유력기관 일군들, 평양 주민 등은 ‘식량 사정이 나쁘더라도 당을 믿고 따르라, 잘 견디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의 배경에 대해서 스님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도 식량 원조 얘기가 아직 없으며,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출구 없는 최악의 식량난으로 주민 소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불안이 판도로 뻗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도주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가난한 나라의 굶어죽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지원 원칙이다. 남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 내부의 식량 사태와 주민들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즉각 필요 식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언 기자

평화재단 대북 지원 대안 모색

전문가 포럼서 북한 상황 진단

평화재단은 제41차 전문가 포럼을 열고 북한 중앙당의 5월 26일 식량 배급 중단 선포 조치 이후 중공기 북한의 식량 상황,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진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강동원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동원 연구원은 “대북 지원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라며 “대북지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 효과성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만큼 정당성 제고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북 지원은 양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는 무소유!

법정스님께서 생전에 허락하신 귀중한 유물의 면모, 소유와 집착이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법정 스님이 전하는 깨우침의 이야기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만화로 완벽하게 재현한 만화 『무소유』



만화로 보는 대통령 풍수 이야기 명당 풍수

대통령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